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게 살수있다”

고규홍(58) 나무 칼럼니스트(천리포수목원 이사)는 '나무 시인', '나무 대변인', '나무 인문학자'로 불린다. 그의 나무인생은 한겨울에 꽃망울을 터뜨린 '리틀 켈' 목련꽃을 우연하게 보면서 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때의 감동을 '천둥처럼 나무가 내게 걸어왔다'라고 말한다. 이때의 울림은 그가 '나무와 함께하는 삶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게 된 첫걸음'이 됐다.



나무로부터 위안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홈페이지 '솔숲 닷컴' (www.solsup.com)을 운영하며 나무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아쿠시마 조몬 삼나무 답사를 다녀왔다. 나무와 사람의 공존을 줄곧 이야기해온 그의 나무론(論)은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도시인들에게 '나무그늘에 서서 30초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것'을 강조한다. "우리 곁에 있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나무를 찾을 필요 없고 어떤 나무든지 좋습니다. 그 곁에 서서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오는 산소는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뱉는 날숨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순환 고리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의 20년 나무인생

◇한겨울 핀 목련 보며 나무와 인연=그는 기자 출신이다. 중앙 일간지 문화부에서 학술담당 기자를 12년 동안 하다 그의 나이 불혹(不惑)이던 1999년 가을에 사표를 던졌다. 자기의 글을 쓰고 싶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무작정 서울을 떠나 찾아갔던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눈속 개화한 목련을 보며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년 동안 발품을 팔며 이 땅의 오래된 나무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답사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 노거수(老巨樹)를 보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동네 어귀나 들녘, 산자락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살이(人)의 무늬(文)'를 곁집어내는 일, 다시 말해 인문의 향기를 찾는 일이다. 기자의 경험이 다른 이들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 재산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령 300년생 물푸레나무(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를 찾아내 천연기념물 470호로 지정되게끔 하기도 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은 분명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 알아낸 이야기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퍼즐을 완성한다.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외구마을 급사정 동백나무(2009년 천연기념물 515호 지정)와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이팝나무(1968년 천연기념물 214호 지정)가 그러한 경우이다.

조선 중종 14년(1519년), 기묘사화를 피해 낙향한 귀래당 임봉(백호 임제 할아버지) 등 나주출신 선비 11명이 굳이 동백을 심은 까닭은 열까? 그는 이렇게 해석한다.

“사철 푸르른 동백나무 잎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이루고자 한 애초의 뜻을 잃지 말자는 다짐이었다. --동백꽃의 핏빛 절개처럼 좌절한 그들의 울분도 언젠가는 화려하게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시각 내려놓으니 사유 시작돼=그는 오랜 시간 큰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나무를 제대로 보기 위해' 고민했다. 눈으로만 보지 않았다. 껍질을 만져보고, 잎사귀를 씹어서 맛을 보기도 했다. 심지어 수면안대를 사가지고 나무를 찾아가기도 했다. 시각은 물론 촉각과 청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총동원했다.

그는 눈 위주인 자신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나무를 느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왔다.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였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그에게 '나무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능소화와 낙우송, 자귀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관찰했다. 이러

천리포수목원 한겨울 목련에 매료

1999년 중앙 일간지 기자 사직

전국 돌며 오래된 나무 찾아다녀

“나무의 다른 이름은 치유와 위안”

한 나무공부를 통해 그가 얻은 것은 너무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시각 위주로 나무를 보지 않으면 사유(思惟)가 동반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김예지씨가 목련 열매와 꽃봉오리를 만져보면서 '생명이 마무리했을 때는 딱딱하게 자기를 마무리하고,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그 안을 풍요로운 여유로 가득 채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철학적 사유예요. 저는 20년 동안 목련을 봤지만 그 목련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사유해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무의 다른 이름, 치유=그는 요즘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일보와 월간 <생태> 등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대학 강단에 오르고 있다. 또 한해에 100여 차례의 강연을 다닌다. 강연 주제는 '치유의 다른 이름, 나무'이다. 그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면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느티나무(1996년 천연기념물 382호 지정)를 찾아간다. 말없이 서있



오래된 나무에서 사람살이의 무늬를 찾는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고규홍 씨. <고규홍 제공>

김희준 작가 7번째 개인전 '몽환화'

27일~5월 7일 북구청갤러리

김희준 작가가 7번째 수채화 개인전을 연다. '몽환화'라는 주제로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광주 북구청 민원실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 총 44점이 전시된다.

김 작가는 일상의 정물, 꽃, 화병, 풍경 등에서 얻은 영감으로 외부의 형상을 벗겨내고 내부의 본질을 과감하게 표현했다.

김 작가는 "수채화 하면 가볍고 수정할 수 없는 장르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나의 수채화는 유화 같은 목직함을 유지하면서도 수채화 고유의 맑음과 경쾌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6회 및 단체전 200여 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대한민국 회화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대한민국 남동미술대전·순천미술대전·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문의 062-410-62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몽환화'

재개관 순천 '배병우 스튜디오' 김태형 사진전

5월 6일까지 '사이프러스' 선 보여

'미투 파문'으로 지난달 폐관됐던 순천 '배병우 창작 스튜디오'가 다시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사진,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모두 6팀을 선정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이는 사진작가 김태형씨다. 김 작가는 오는 5월(6일까지) 자신의 대표작 '사이프러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사이프러스' 연작은 그가 독일에 거주하던 당시 진행한 작업으로, 필름 촬영한 작품들 중 컬러 사진을 전시한다. 피사체를 가까이 마주했을 때에 사진가가 받았던 기이하고도 낯선 느낌을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악이 함께 채워진다. 사이프러스는 주택의 경관을 꾸미는 데 많이 쓰이는 수종으로,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돼 울타리나 담장의 역할을 한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김 작가는 영국 엘리시움 갤러리에서 열린 '2015 'ESPY Photography Award 2015' 등에 참여했다.



'사이프러스' 연작

한편 배병우 스튜디오는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참여형 어린이공연 창작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어린이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18 ACC 참여형 어린이공연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2018 ACC 참여형 어린이공연 창작지원사업'은 3~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예술단체나 개인으로 어린이 공연에 관심있는 전문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연 형식은 어린이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100명 이내 소규모 공연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ACC의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등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 하거나 자유주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와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01-402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제 63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기간 2018. 5.14(월) - 5.16(수)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9일(목)~5월 29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의장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8년 4월 16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예정)

개인: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전라남도교육청

